

갯가의 聖女
윤학자 탄생 101주년에 생각하는

韓日

2013년 10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

수림문화재단 • 문화체육관광부 • 송실대학교

식순

일시: 2013년 10월 30일 오후 5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 사회 : 양기호 (한일미래포럼 상임이사)

개회사

- 김 수 한 /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 전 국회의장

축 사

- 외 교 부
- 주한 일본대사관

주제발표

- 윤학자 탄생 101주년에 생각하는 韓日
라 종 일 / 전 주일, 주영대사

현안진단

- 한일관계 오늘의 과제와 바람직한 미래
오 태 규 / 관훈클럽 총무, 한겨레 논설위원

만찬

차례

- **개회사** 1
김 수 한 /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 전 국회의장
- **주제발표** 윤학자 탄생 101주년에 생각하는 韓日 3
라 종 일 / 전 주일, 주영대사
- **현안진단** 한일관계 오늘의 과제와 바람직한 미래 9
오 태 규 / 관훈클럽 총무, 한겨레 논설위원
- **와카미야의 東京小考** ‘갯가의 성부처(聖夫妻)’는 무엇을 생각할까 .. 14
와카미야 요시부미 / 전 아사히신문 주필, 일본국제교류센터 시니어펠로
- **초대의 글** 17

開 會 辭

韓日 兩國關係가 1965年 國交正常化 以來 많은 迂餘曲折과 政治的 葛藤을 겪으면서도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라는 價値觀을 共有하는 美國과 더불어 東北亞에 있어서의 唯一한 盟邦으로서의 基本的인 紐帶와 相互協力 體制를 確固하게 維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兩國關係가 近者에 와서 날로 冷却돼 가고 있는 듯한 憂慮를 낳게 하고 있을뿐더러, 9月初에 있었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G-20 頂上會議에서, 그리고 지난 週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APEC 頂上會議과 또한 며칠 前에 있었던 보루나이 ASEANS 頂上會議 등에서 兩國 首腦가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매우 굳은 雰圍氣는 泛然히 보아 넘길 수 없는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懇切하게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尊敬하고 推仰하는 尹鶴子, 田内千鶴子 이름이자 精神입니다.

아시다시피 日本의 四國 高知에서 태어난 尹鶴子 女史는 1950年代부터 6, 70年代에 걸쳐 남편도 없이 全南 木浦에서 홀몸으로 3,000余 名の 戰爭孤兒들을 極盡히 돌봐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길러냈습니다.

尹女史님의 孤兒사랑은 따뜻한 人類愛의 발로였고 韓日 兩國間의 友好親善에도 큰 도움과 敎訓을 남게 했습니다.

尹鶴子 女史님의 그 같은 高貴한 뜻은 子女들에게도 이어져 堺市(사카이市)、神戶、京都에 이어 東京에도 멀지 않아 “老人홈, 故鄉의 집”이 세워지기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尹女史님의 성스러운 生涯와 博愛精神을 기리기 위해 “世界孤兒의 날”을 制定하기 위한 運動도 現在 展開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艱難辛勞 끝에 樂이 온다고 했습니다.

尹女史님의 子弟이신 尹基會長이 하시는 일에 큰 發展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尹女史님을 生前에 뵙지는 못했지만 그의 長男인 尹基會長을 통해 韓日友好의 象徴이기도 한 尹鶴子 女史와 因緣을 맺게 된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聖女 尹鶴子 女史 誕生 101周年을 맞이하여 韓日 兩國關係의 오늘과 未來를 생각해 보는 이 같은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生覺하며, 다시 한 번 尹鶴子 女史 記念事業이 韓日 兩國의 友好關係에 밑거름이 되기를 祈願합니다.

2013年 10月 30日

韓日親善協會中央會 會長
前 國會議長 金守漢

주제발표

윤학자 탄생 101주년에 생각하는 韓日

라 종 일 전 주일, 주영대사

3천명의 어머니로 살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 윤학자, 일본 이름 다우치 치즈코.
그러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국적을 초월했던 여인. 따뜻한 모습으로
시대의 아픔을 감싸 안았던 윤학자 여사.
그녀는 네 자녀의 어머니이자, 고아들의 어머니였으며 시대의
어머니였습니다.

윤학자 여사가 떠나던 날,
‘목포를 울린 장례! 3만 조객의 슬픔을 뒤로하며
“고아의 어머니” 윤학자 여사 떠나시다’
라고 추모하였다고
당시 장례식을 조선일보(1968. 10)는 보도하였다.



1997년 10년 31일 어머니(윤학자 여사)의 고향인 고치 하늘에 한국 소녀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학자 여사의 탄생일이자 기일이기도 한 날이다. 목포공생원의 아이들과 한국 각지에서 모인 250여명의 사람들이 여사의 생가 근처에서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소녀들의 노랫소리에 윤학자 여사가 떠오른 사람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윤학자 여사)가 태어나신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 모인 모든 사람들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어머니는 또 한명의 마더 테레사입니다’라고 전했다.

1912년 고치시 와카마쓰마치에서 출생한 윤학자 여사는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하는 부친을 따라 전라남도 목포로 건너왔다. 그 당시, 일제 강점기로 반일감정이 뜨겁게 달아 오른 시대였다.

「아이들에게 웃음을 되찾아주기 바란다」라는 은사의 말에 윤학자 여사는 1936년 「목포공생원」에서 아이들을 보살피기 시작했다. 「목포공생원」은 故 윤치호 전도사가 먹을 것이 없어 거리를 방황하던 7명의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게 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시설이라고는 이름뿐인 초라한 건물, 윤학자 여사는 그 곳에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쳤다. 사람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던 아이들이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표정도 밝아졌다. 어느샌가 여사가 없는 공생원은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친아버지처럼 늘 아이들을 감싸고 보살피는 윤치호 원장에게 끌리고 있던 여사는 만난지 2년 후 결혼한다. 동시에 공생원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한국이 일본의 오랜 지배에서 해방되었을 때, 윤치호 원장은 부인이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친일파로 몰려 많은 곤란을 겪게 되었다. 결국 다음 해 여사는 두 명의 자녀와 함께 일본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남편과 공생원의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던 여사는 친어머니를 홀로 고치에 남겨두고 목포로 다시 돌아온다.

멀리서 여사를 발견한 많은 아이들이 그녀를 마중 나와 에워쌌다. 나를 이렇게도 기다렸다니, 이를 계기로 여사는 고아들의 어머니로 살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름도 윤학자라는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고 친자식들도 고아들과 함께 키웠다. 늘 치마저고리를 입었던 여사의 옷에서 아이들의 냄새가 사라지는 일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인인 윤학자 여사를 죽이려는 마을사람들이 느닷없이 들이 닥쳤다. 여사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지만 일본이 한국에 한 짓을 생각하면 죽인다 해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일본인이 저지른걸 속죄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그때였다. 「어머니를 죽으려면 우리도 죽어요」, 「일본인지만 우리들의 어머니예요. 누구 한 사람도 우리 어머니에게 손댈 수 없어요」라며 작은 아이 큰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손에 방망이나 돌을 들고 필사적으로 윤학자 여사를 지켰다. 「그때 일본인인 타우치 치즈코는 죽었다. 아이들이 지켜 준 목숨, 그 목숨을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다는 여사의 후일담이 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한국은 다시 뒤숭숭해졌고 식량 배급을 받으러 광주 도청으로 간 윤치호 전도사는 행방불명되었다. 그 후 공생원의 운영이나 400명이 넘는 고아들의 식량배급 등 모든 것을 윤학자 여사 혼자서 꾸려 나갈 수 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국교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인인 당신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가 없다」라며 이제까지 공생원의 활동을 이해하고 원조해 주던 사람들도 점차 윤학자 여사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공생원의 운영을 걱정하던 윤학자 여사는 결혼할 때 어머니가 보내준 오르간이나 기모노 등 팔 수 있는건 모조리 팔아 식량으로 바꿨다. 「이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편할텐데…」바다에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고치에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에 여사의 얼굴에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때 「어머니 봐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도미 잡아왔어요. 이걸로 오늘 저녁 만들어요」라며 재균이라는 고아원생이 달려왔다. 이제까지 윤학자 여사에게 버팀목이 되어준 아이였다. 「저는 외로울 때 바다로 와요. 웬지 바다 저편에 친어머니가 계신 듯해서요. 윤학자 여사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아이들이 있어!」여사의 마음속에 더 이상의 흔들림은 없었다.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며 공생원의 운영에 전력을 기울였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공생원이 없어졌다면 실망할텐데... 조금 더 노력하고 참는다면 남편이 곧 돌아올지도 몰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운영자금을 모아 아이들의 식량이나 옷을 마련했고, 공생원 활동을 이해해 주는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아이들의 병이 낫을 때는 한밤중이라도 등에 업고 고개를 넘어 의사를 찾아갔었다.

한국 정부는 윤학자 여사의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1963년 8월 15일 최고 영예상인 대한민국문화훈장을 수여했다. 한국 독립 이래 일본인으로서의 처음으로, 더군다나 일본이름으로 훈장을 수여받은 윤학자 여사에게 하얀 치마와 저고리가 눈부실 만큼 잘 어울렸다. 「나는 남편이 목숨을 걸고 고생하며 시작한 공생원을 지켜온 것 뿐입니다. 고생이랄 건 없었습니다. 고생이라면 아이들이 했지요」라며 겸손해 했지만, 윤학자 여사는 일본인인 자신에게 주는 이 훈장의 의미와 무게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러던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윤학자 여사에게 병마가 덮쳤다. 과거에 앓은 폐암이 재발한 것이었다. 병상에서도 여사의 머릿속에선 공생원 아이들의 모습이 떠나질 않았다. 결국 윤학자 여사는 1968년 10월 31일 오후 2시 40분 그녀의 혼이 담긴 공생원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다.

1968년 11월 2일 윤학자 여사의 영결식은 목포시 최초의 시민장으로 거행되었다.

〈공생원아 애도사〉

눈물과 피와 땀으로 씨를 뿌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 그건 당신입니다! 언어도 풍습도 다른 이 나라에서 배고픔에 굶주려 울고 있는 아이들을 모아, 당신의 손으로 밥을 지어먹이셨습니다. 입을 것이 없을 때는 옷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비록 연약한 몸이지만 굳은 의지 하나로 저희들을 길러

내셨습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저희들의 얼어붙은 작은 손을 당신의 따뜻한 입김으로 녹여주시며 격려해주셨던 어머니. 사랑으로 충만한 당신의 눈을 지금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빕니다. 저희들은 당신이 바라던 대로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 이제 마음 놓고 편히 쉬세요.

공생원은 지금도 목포시의 상징인 유달산 산기슭에 있으며 취학 전의 아이들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70여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축구를 좋아한다는 아이들의 표정에는 그늘이 없다. 고생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친 어머니 홀로 일본에 남겨두고 공생원으로 되돌아온 여사의 마음을 알 듯하다.

원내에는 「사랑이 있는한 인간의 내일은 걱정이 없다」라는 비석이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을 늘 지켜주고 있다.

1997년, 윤학자 여사의 업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고치시 와카마쓰마치에서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목포산 돌로 세워진 기념비는 「한국 고아들의 어머니」「사랑의 고향」이라는 문구가 한글로도 새겨져있다. 먼 바다를 건너온 기념비는 윤학자 여사가 평생을 거쳐 길러낸 아이들 수 만 톤의 작은 돌 3,000개에 둘러 싸여 목포를 향해 서 있다.

「어머니께서는 복지에 관한 이론을 공부하신 건 아니지만 진심어린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복지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어머니이신 윤학자 여사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목포사람들도 인본인인 윤학자 여사를 격려하고 응원했으며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음식물, 병 들었을 때는 위문을,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는 시민장 영결식을 해주셨습니다. 목포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간 윤학자 여사를 받아들였습니다. 목포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날의 윤학자 여사가 있는 겁니다」라며 장남인 윤기는 이렇게 말했다.

삼천 명의 어머니로서 살아온 윤학자 여사의 사랑은 지금까지도 한국과

일본의 가교로 계속 남아 후손들을 통해 다양한 복지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56년동안 한 시대의 어머니로 살았던 윤학자 여사.
인종을 초월했던 사랑과 헌신, 고아없는 세상을 이루고자 하셨던
어머니의 사랑은 멈출 수 없습니다.

현안진단

한일관계 오늘의 과제와 바람직한 미래

오 태 규 관훈클럽 총무,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한때 ‘박근혜의 창조경제’, ‘김정은의 속마음’, ‘안철수의 새 정치’가 3대 미스터리라는 우스갯소리가 정치권에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 사람의 주변 상황을 보면, 이런 미스테리가 완전히 풀린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이와 비슷한 종류의 세 가지 미스터리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만 모르는 국제적인 미스터리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첫째 우리나라가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지역이라는 사실, 둘째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에 비추어 무척 잘 사는 나라라는 사실, 셋째 일본이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강국이라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 일본에만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시리즈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건 지인이 최근 일본에 갔다가 들은 얘기라면서 저에게 전해준 얘기입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최악의 관계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본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 때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세 가지 세트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3가지 세트가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 때의 세 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독도 방문, 천황 사죄 발언, 일본의 국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발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기류가 바뀔 것으로 기대했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만만치 않게 한·일 관계가 꼬이고 있는데, 그 사례는 ‘역사인식의 수정 없이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는 융통성 없는 박대통령의 원칙주의, 사법부의 결정이기는 하지만 야스쿠니 신사 방화범인 조선족 출신의 중국인 유창의 중국 인도, 쓰시마 섬에서 도난해온 불상의 반환불가 판결, 징용자 배상 판결 등 일련의 반일적인 사법부의 결정, 도쿄올림픽 결정 하루 전의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수산물 수입 금지는 그런 일정을 잘 살펴 날짜를 하루만 뒤로 미뤄도 그런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하튼 지금의 상황은 긴 한·일 관계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1500년의 한·일 교류사에서 한·일관계가 나뉘었던 건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7년, 메이지 유신 이후 40년 정도에 불과했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석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새로 대통령이 되고 일본 총리와 이렇게 오랫동안 회담도 하지도 못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정치의 냉기류에 관광, 한류 등 문화교류도 직접 타격을 받고 있고, 이런 기류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치와 제도를 공유하고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꾀해야 할 한·일 두 나라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한·일 관계의 냉기류가 단지 지도자의 실수에 기인한 일과성 사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시대적 상황의 변화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역사 갈등을 보면, 군사정부 시절에는 반공동맹의 필요성에 따라 ‘과거사’에 대해 사과 없는 한·일협정의 모순이 억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냉전의 해체와 한국의 민주화와 한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이런 모순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내장하고 있던 고대부터 우리가 중국에서 온 문화를 전수해왔다는 자긍심, 얼굴과 피부색이 비슷한 사람에게 흑독한 식민 지배를 당했다는 치욕감 및 복수심, 도덕적 우월감이 일거에

터져 나온 것이 지금의 역사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국력(국내총생산 기준)의 차가 얼추 1대50 정도였을 때 맺어진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상의 틀이 그 차가 1대5 정도로 줄어든 요즘에 들어 압력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파 성향이 강한 아베 신조 정권이 사사건건 퇴행적 역사인식을 보이며 국민감정을 자극하며 불에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고 일본의 국력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 식대로 축소해 보는 것은 두 나라 간에 얹혀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도 경기에서 그러하듯이, 강한 상대를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상대가 나보다 얼마만큼 강한지를,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일 간에는 지금 몇 가지 중요한 현안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역사 인식입니다. 그에 못지 않은 게 중국의 급부상 및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 차원의 대응입니다. 물론 경제와 환경, 에너지, 문화 등의 다방면에서의 협력도 긴요합니다.

답답한 것은 이 모든 문제가 일본의 퇴행적 역사인식과 이에 대한 한국의 감정적 대응에 옴짝달싹 못하고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큰 원인은 복고적 국수주의를 내건 아베 정권이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역사인식을 다른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화 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경직된 자세에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지만 다른 현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고 전략적 접근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대일 전략은 현실 상황을 바탕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일본과 계속 냉랭한 관계를 유지한 채 중국과 따스하게 지내는 게

변화무쌍한 동북아 구도를 살아가는 데 유리한 선택인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 나가야 할 동북아 지역공동체 구성에 유리한 것인지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으로 중국 견제를 앞세우는 미국이 일본의 역사퇴행보다 집단자위권 용인 등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지지하고 있는 사정도 감안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과거사를 미뤄놓자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사는 그것대로 엄격하게 따지되 과거사 이외의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등의 문제는 분리해서 실용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제적 인권문제로 확산된 일본군 군대위안부 문제는 원칙대로 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당당하게 밟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일본이 양자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중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독도 문제도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유하는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먼저 과도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영 전 아시아국장의 말대로 유소작위 과유불급의 자세로 해야 합니다.

가장 미묘한 것은 군사보호협정 체결, 일본의 집단자위권 등 군사화에 대한 대응인데, 이것은 국제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우리의 국익에 무엇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해 역사 갈등을 무시하고 일본의 군사화를 지지하는 미국과 달리, 역사인식의 개선 없이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나 협력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일관계는 갈등보다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일본의 퇴행적 과거인식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무조건 협력만을 외칠 수 없습

니다. 또 과거사 갈등으로 아무 협력도 안 된다는 경직된 자세도 문제입니다. 국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안별로 분리해 영리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찾고 실행하는 것이 여기에 오신 여러분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와카미야의 東京小考]

‘갯가의 성부처(聖夫妻)’는 무엇을 생각할까

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신문 주필, 일본국제교류센터 시니어펠로

반일-혐일 최고조이던 시절 목포서 고아들 위해 삶 바친 다우치 지즈코와 윤치호
술한 박해-역경속 손 맞잡고 박애정신 실천한 韓日부부
자신만 사랑하는 두 나라에 “서로 배려하라” 말하지 않을까

“서울에서 일본말만 들려도 술병이 날아가던 1960년대였습니다. 그런 반일(反日) 혐일(嫌日)의 시절이던 1968년, 목포 시민들은 한 일본 핏줄 부인의 임종에 시민장(葬)을 치렀습니다. 일본 고치(高知) 태생으로 처녀 시절 이 땅에 왔다가 서남해안 갯가, 목포에서 고아 3000명을 거두어 기르다 운명한, 그녀의 명복(冥福)을 시민 모두가 두 손 모아 빈 것입니다.”

이달 30일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모임(수림문화재단 주최)의 초대장 첫 부분이다. 모임의 이름은 “갯가의 성녀” 윤학자 탄생 101주년에 생각하는 한일”. 모임 다음 날인 31일은 성녀의 생일이자 45번째 기일이기도 하다.

윤학자. 일본명은 다우치 지즈코(田内千鶴子). 한국에서 ‘고아의 어머니’로 불리는 인물이다. 원래 젊은 기독교 전도사였던 윤치호 씨가 목포의 다리 아래에서 추위로 떨고 있던 아이 7명을 데려다 키웠던 게 시작이었다. 1928년 보육원 ‘공생원’이 생겨났는데 거기서 봉사활동을 한 사람이 당시 여학교 음악교사였던 지즈코 씨. 10년 뒤 둘은 결혼했다.

1945년 한국이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해방을 맞자 남편과 함께 목포에 남았던 그녀는 일본인이란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 하지만 거기에 맞선 이가 공생원 아이들과 졸업자들. “일본인이지만 우리의 소중한 어머니이기도 하

다”며 온 몸으로 그녀를 지켰다.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애정을 보여준 어머니를 모두 좋아했을 것이다.

공생원은 곧 6·25전쟁의 피해를 봤다. 가장 큰 비극은 식량 지원을 요청하러 광주에 나간 남편이 전쟁 중에 행방불명된 것이다. 그래도 그녀는 목포에 남아 공생원을 지켰다. 공생원에 있던 고아는 전쟁으로 늘어나 5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치마저고리 모습으로 리어카를 밀고 구걸하며 아이들에게 정성을 다한 모습에 시민들은 감동했다. 장례를 치른 날 신문은 ‘목포가 울었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윤학자란 이름을 아는 한국인이 많기 때문에 내가 굳이 소개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다우치 지즈코란 이름을 아는 일본인은 그리 많지 않다. 그녀를 다룬 한일 공동영화도 있었지만 나는 보지 못했다. 이번에 그녀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다. 그런 일본인이 있었다는 점에 자랑스럽기도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러워지기도 했다.

이번 모임을 생각한 이들은 일본인이 아니다. 파고가 높은 현 한일관계를 걱정하며 어떻게 국경과 역사관의 틈을 뛰어넘을 것인지, 지금이야말로 ‘갯가의 성녀’를 떠올리고 그 인류애를 배울 때가 아닌지 생각한 이들은 한국인들이었다.

10명의 발기인은 김수한 전 국회의장, 공로명 전 외교장관, 나종일 전 주일대사 등 쟁쟁한 분들이다. 영광스럽게도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나를 제외하면 모두 한국인이다. 일본이라고 하면 뭔가 비판과 공격의 타깃이 되는 지금, 그런 일면적인 견해를 뛰어넘자고 하는 자숙인지도 모르겠다. 혹은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자고 주장하는 ‘용감한 언론’이 눈에 띄는 최근 오히려 일본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한때 그녀와 같은 일본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닐까 하고 묻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일본인인 나는 지금 그의 남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시대 일본인 여성이 목포에서 고아의 구제활동을 돕고 그걸 자신의 천명으로 여기기까지 했다. 그런 기적에 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은 윤치호 씨의 정열과 큰 박애심을 지켜봤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시절 스스로 그런 활동에 몸을 던진 한국인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도 ‘갯가의 성인’이라고 부르기에 걸맞지 않은가.

전쟁, 그것도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 속에 고아를 위해 식량을 구하다 목숨을 잃어버린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였기에 윤학자 씨도 이를 악물었다. 한국도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은 과거 그와 같은 한국인이 있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현재 한일은 너무 자신을 사랑한 나머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결여된 것처럼 보인다. 어려움 속에 손을 맞잡으며 위대한 박애정신을 발휘한 ‘갯가의 성부처(聖夫妻)’는 지금 천국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동아일보 컬럼 (2013년 10월 24일자)

초대의 글

서울에서 일본말만 들려도, 술병이 날아가던 1960년대였습니다. 그런 반일 혐일(嫌日)의 시절인 1968년, 목포시민들은 한 일본 핏줄 부인의 임종에 시민장(葬)을 치렀습니다. 일본 고치(高知) 태생으로 처녀 시절 이 땅에 왔었다가 서남해안 갯가, 목포에서 고아 3천명을 거두어 기르다 운명한, 그녀의 명복(冥福)을 시민 모두가 두 손 모아 빈 것입니다.

타국만리 이역(異域) 목포에서, 고아를 기르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지보다 못한 비참하고 낮은 삶을 자청하며 휴머니즘을 실천한 윤학자(다우치 치즈코, 田内千鶴子). 그녀는 고아원장이자 남편인 윤치호와 손잡고, 절대빈곤과 전란의 시기를 견디며 오로지 희생과 헌신, 정성과 열정으로 스스로를 불태우다 갔습니다. 그녀는 진정 '갯가의 성녀'였습니다. 거룩한 인간애와 박애정신을 실천한 참 일본인이었습니다.

10월31일은 한국인의 아내로, 고아들의 어머니로 살다 간 윤학자 여사의 탄생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그녀가 임종한 기일(忌日)이기도 합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가장 험한 파고(波高)가 몰아치는 한일관계, 불신과 반목, 갈등으로 얼룩져 가는 현실을 마주하며, 새삼 '갯가의 성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증오와 질서를, 국경과 역사관의 단애(斷崖)를, 사랑과 공존, 휴머니티의 본질을 몸소 실천하며 뛰어넘었던, 윤학자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2013년 10월

공로명 전 외교부장관, 주일대사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신각수 전 주일대사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 주일대사

최상룡 전 주일대사

김수한 한일친선협회중앙회장, 전 국회의장

박지원 국회의원

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신문 주필, 일본국제교류센터
시니어펠로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이사장